## 김장철 붉은 고추가루의 배신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 짜 고춧가루 사건이 골칫거리로 등장한 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사건 판결문에 서 한국인의 식탁을 위협하는 가짜 고추가 루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업자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 로 둔갑시켜 무려 13억 원어치를 팔아넘긴 이야기다. 이 업자는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2년 동안 닭갈비와 소스를 온라인 쇼 핑몰에서 팔아 왔는데, 포장지에는 당당 하게 '국내산' 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은 중국산 고춧가루가 다량 섞여 있었다. 법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 렸다.

가짜 고춧가루의 수법 또한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중국산 건고추나 다대 기 혼합 양념을 건조하여 국내산 고춧가루 로 둔갑시킨 후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다대기 형태의 혼합양

념을 건조한 후 고춧가루 제품으로 둔갑시 켜 학교급식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통 해 유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원산지를 거짓 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초래하도록 표시 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적용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 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과징 금제도가 도입되어, 허위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 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운영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위반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 시 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 직구로 수입하 거나 배달음식 등 유통망이 복잡하거나 온 라인 판매 상품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대한 추적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짜 고춧가루 유통은 농민들의 정직한 노력과 한국음식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를 위협하는 악덕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국 식문화의 '영혼'이 담긴 고춧가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짜 고춧가루로부 터 진품을 가려 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가짜 고춧가루를 가려내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색깔을 확인하자. 국내산 고춧가루는 선명한 주홍빛을 띤다. 반면 중국산은 탁 하고 어두운 적갈색에 가깝다. 지능적이 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식용색소를 첨가하 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연광 아 래에서 자세히 보면 차이를 알수 있다.

향을 맡아 보자. 국내산은 고추 특유의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난다. 중국산은 향이 약하거나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셔 보기 바란다. 후각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입자를 관찰하자. 국내산 고춧가루는 입자가 균일하고 곱다. 중국산은 굵기가 불균일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질감의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가격을 의심하자. 만약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국내산'이라 표기되어 있다면 일 단의심해야한다. '싼게 비지떡'이란 우리 속담을 기억하자.

#### 오늘의 운세 11월 4일 (음 9월 15일)



36년생 옛 은인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48년생 살가운 권모술수를 조심해야 할 듯. 60년생 이성을 바꾸어가며 만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72년생 더위는 더위 로 해결하도록. 84년생 분수를 알아야 분수를 지킬 것 아닌가.



37년생 직장에서 도덕심은 나를 오래도록 이끌어준다. 49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반 드시 참석하도록. 61년생 양다리 걸치지 마라. 73년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쓸모 가 있다는 것. 85년생 진정한 부자는 베풀면서 겸손해한다.



38년생 옛말에 삼재팔난이라 했으니 먼저 배려하라. 50년생 종일 시장을 다니며 물 건을 구경한다. 62년생 너무 계산하다가 좋은 사람 놓친다. 74년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86년생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39년생 옷이 남루하여도 슬퍼 말자. 51년생 돈도 능력이니 부지런히 벌어라. 63년생 태풍 뒤에는 언제나 하늘은 맑아지게 됨. 75년생 간사 한자에 모함에 걸리지 않게 나도 말조심. 87년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격려하여 기쁘다.



다투지 마라. **64년생** 집이 없어도 화목함이 있으니 다시 일으키게 된다. **76년생** 자격 증시험 합격소식. 88년생 인간사새옹지마(人間事塞翁之馬)이니.

41년생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다. 53년생 희로애락은 가정의

40년생 본심이 밝고 맑다면 행복한 결과가 온다. 52년생 약속이나 기한이 늦어져도



행복에서 출발. 65년생 남의 말에 간섭하지 마라. 77년생 마음이 어진 선배 조력은 힘이 된다. 89년생 세상사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다.



42년생 죽음의 허무함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도 있다. 54년생 연인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66년생**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이라 하지만. **78년생** 일이란 혼자 힘 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90년생** 기술력은 좋으나 세상 물정은 모른다.



43년생 바쁠 때 건널목에서 차량주위. 55년생 조부모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듯. 67년생 자신의 허물은 생각 않고 항상 남의 잘못만 끄집어낸다. 79년생 뜻 맞는 사람 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 91년생 최소한 자기 주변에 인색하지 말자.



44년생 잘난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56년생 때로는 안경을 벗어보면 보인 다. 68년생 영업에서 실적이 없으면 더욱 피곤한 것이다. 80년생 주택 집에 오동나무 를 심어 볼까나. 92년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날.



45년생 작은 부주의로 일을 그르치니 잘하자. 57년생 약한 자가 강자에게 달걀로 바 위를 친다는 말을 살펴보라. 69년생 남의 탓하지 말고 현명하게. 81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 있다. 93년생 역마의 기운으로 먼 길 떠나 객지 밥을 먹는다.



46년생 과시에 치중하면 복덕을 깎는다. 58년생 자식의 학력위조는 결과가 시끄럽 다. **70년생** 말이 많다 보니 내면이 빈곤. **82년생** 공부하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다. **94년생** 돈을 벌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 하는 글귀를 보다



47년생 의외로 묶여있던 어려운 일이 풀린다. 59년생 증권도 계획 없는 투자는 손실 로 이어진다. 71년생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83년생 마음에서 마음인 심 심상인(心心相印)이다. 95년생 상승세도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느슨해진다.



### 김상회의 四季

무중생유 계책

무중생유無中生有는 36계 병법 중 일곱 번째 계책으로 '아무것도 없 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이 계책에는 창조와 변 화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지혜가 담겨있다. 눈앞에 보 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 을 만들어내는 병법은 인생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특히 개인의 운 명을 탐구하는 학문인 명리학과 접점을 이루는데 사주팔자를 통해 개 인이 타고난 기운과 운의 흐름을 분석한다. 명리의 진정한 가치는 주어 진 기질과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얻는 데 마치 인생 의 지도와 같다. 중요한 것은 이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길을 선 택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살면서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은 나를 돕지 않는 것 처럼 느껴지는 때를 만난다. 흉운의 시기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 한다. 그러나 無中生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난의 상태를 절망의 시 간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준비 단계로 인식한다. 사주에 재 성이 약해 돈을 버는 재능이 부족하다면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고 유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한계의 지점에서 길을 찾아내는 지혜를 말 한다. 운세가 약한 시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약해지는데 무중생유의 태도 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확신으로 행동하면 자기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명리가 인 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알려주는 지도라면, 無中生有는 그 지도 위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하는 지혜로운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불 확실성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계책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	메트로미디아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발행·편집인 이 장 규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	206 2002년5월28일	일 제57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	0111 2017년3월09	일 제18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사적' 마인드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올해 국정감사는 급하게 막을 내린 윤 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돌아보고 이재명 정 부의 미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았지만, 중요 상임위에서 민생과 미래 를 위한 감사가 덜 주목받았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신, 이번 국감은 '대(大)숏폼시대' 도 래와 함께 자극적이고 감사와 상관 없는 이슈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미래 과학 기 술 진흥과 방송의 중립성 등 중차대한 현 안이 산적한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 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상임위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보여줬다.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감(私 感)'에 휩싸여 생중계 중인 회의장에서 욕 설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 중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결혼 을 했고 과방위 피감기관이 해당 결혼식에 화환과 축의금을 보낸 것이 알려져 큰 논란 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결제' 기 능까지 탑재돼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국회 의원이나 보좌진을 상대하는 대관(對官) 직원들은 '을'이 아니라 '병', '정'의 위치 로 추락한다. 피감기관이나 기업을 상대 로 한 의원 질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불 철주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고 읍소전략 을 펼친다.

그런데, 하필 피감기관의 신경이 곤두 선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자 녀가 결혼하다니, 국회의원이 가진 막강

점철된 사건이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자녀 의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 의금과 화환을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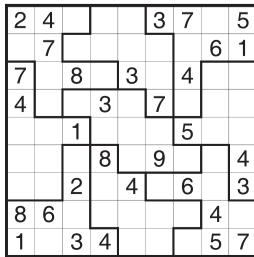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 이다. 대관 직원들은 진실로 최 위원장의 자녀의 결혼을 축하했을까. 오히려 최 위 원장에게 마음의 빚을 지우기 위해 보내지 않았을까.

여야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실현 하지 않는 '공적 마인드'가 선출직인 국회 의원에게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여야 정 쟁의 수준이 높은 상임위일수록 이를 이끄 는 위원장의 공적 마인드도 철저해야 한다. 정당도 주요 직책을 인선하기 전에 후보자 가 가진 '공적 마인드' 수준을 철저히 검토 해 부적격자가 '필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 과방위국정감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한 권한의 무게를 망각한 '사적 마인드'로 을 구축하길 바란다. /pth7285@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sup>서다</sup>나 수</sup>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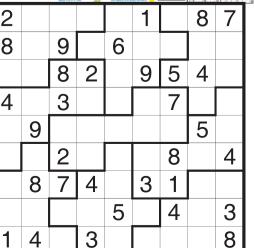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단에 1부터 9의 숫 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8 3 1 4 7 2 8 3 2 4 8 9 1 4 7 8 8

	_	3	l V	8	C	۱.	Č	О	Н
8	2	6	7	9	ε	9	ŀ	Þ	
6	L	Þ	2	ε	9	8	G	Z	
ŀ	9	7	8	6	G	Þ	۷	ε	
СI	8	Z	ε	9	ŀ	6	Þ	2	
									1
8	Z	9	2	6	ε	9	Þ	ŀ	
ε	L	Þ	8	G	L	9	7	6	
G	6	ŀ	ε	7	7	Z	8	9	
	6 9	8 F	ε ∠	1	<b>⊅</b>	7	ε 8		
		8 1	ε ∠ 9	۲ ۲	-	۱ 2		9	
g †	9	_	L	2 1 8	6	3	ε	9	
2 4 2	9 9	_	<u>7</u>	↓ †	6	ļ	ε 6	9 9 4	

8 2 8 9 9 9 3 1 2 2 7 6 3 1 8 8 7